



# 전라남도 목포시 9일간의 해양문화축제 성료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항구도시 목포에서 4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해양문화축제가 펼쳐졌다.

서남권 해상영웅들의 나들목으로서 평화로운 바다를 지향했던 목포만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축제로서 축제를 통해 해양문화 중심도시 건설의 최적지인 목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미항목포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축제는 지역특성을 살려 시민축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의 본고장이자 풍부한 수산자원과 먹거리,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서남권 중심어항으로 신안군, 해남군 등 다도해를 잇는 연안 항로의 중심지로서 개막행사 '출항!'으로 시작된 행사는 '목포평화바다 선포!'를 끝으로 폐막됐다.

특히, 축제기간 중에는 2006 목포풍어제, 목포평화바다 어선 퍼레이드 '만선의 깃발을 올려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으며, 바다행사의 일환으로 목포항 파시(波市), 목포평화바다 해상불꽃쇼, 미항목포 크루즈, 레이저쇼, 남해안 해양민속 초청공연, 해난구조 및 헬기 레펠구조 시연 등을 가졌다.

이와함께 해양 문화·예술행사로서 목포테마 뮤지컬 '난영', 삼학테마 공연 '학춤', 목포 자매결연도시 중국연운항시 여성악단 초청공연, 희망목포 띠배띄우기, 목포 각설이타령 등공연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축제기간 중 특별행사로써 2006 DJ평화 전국마라톤대회, 제6회 전국꽃장식대회, 제1회 이매방 춤 제전, 제1회 목포해양문화축제기념 학술대회, 황포돛배 프로젝트 등을 선보였다.

한편, 77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이번 축제는 어선퍼레이드를 포함한 개막행사와 평화바다선포식,

해상불꽃쇼, 폐막행사'만선' 등 축제의 컨셉을 전달할 수 있는 주제행사를 선보임으로써 목포해양문화축제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도된 해상불꽃쇼에는 20여만명의 관광객과 시민이 한데 몰리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또 109년 역사사진전, 해양유물전시관특별전시, 테마설치미술 '희망의 깃발'등 테마행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래목포의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관광객에게 신해양시대 목포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 축제가 최고의 관광상품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약 250억원 가량의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거뒀다.

반면 우천을 대비해 실내 공연장을 마련하지 못한 점, 평화광장 주무대 부근 화장실 부족 등의 미흡한 점도 발생해 이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 평가했다.

목포시는 무엇보다도 "평화바다 해상불꽃쇼 등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모든 직원들을 행사장에 투입, 적절하게 배치하며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축제기간 내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목포해양문화도시 건설 견인차로서의 목포대표축제로 해양문화가 숨쉬는 미항목포의 이미지업을 통한 지역 브랜드화, 글로벌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6 목포해양문화축제는 지난 2005년까지 10회째 개최한 유달산꽃축제와 2003년까지 8회째 개

최한 도자기축제가 목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여론에 따라 목포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축제개발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시민 아이디어 및 중

합기획안 공모, 대표축제 연구모임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목포해양문화축제로 개발한 것이다.

##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유조선 '야레 바이킹'

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선박 중 가장 큰 배는 1975년 일본 스미토모 중공업에서 건조된 노르웨이 요르겐 야레(Jorgen Jahre) 해운회사 소속 유조선 '야레 바이킹'(Jahre Viking)호이다.

이 배는 길이 458.45미터, 폭 68.86미터, 깊이 29.8미터에 이르고 총톤수 236,710톤으로 화물창의 크기가 658,363㎡로 564,739톤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이다.

이 선박의 길이는 우리나라 63빌딩(249미터)보다 209미터가 더 길고, 갑판면적을 보면 축구장 크기의 2.5배를 넘는다. 이 선박은 그 규모가 너무 큰 까닭에 실제적으로 운항되기보다는 유류 저장시설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야레 바이킹호가 유조선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보면, 일반화물선 가운데 최대 선박은 '베르게 스탈'(Berge Stahl)호이다

이 선박은 광석운반선으로 1986년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었다. 선체 길이는 342미터에 총톤수 17만5,720톤, 화물적재량을 나타내는 재화중량톤수는 36만4,767톤에 달한다. 주기관은 Man B&W 24,858마력 엔진을 탑재하였고 13.5노트 속력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부산항 개항 후 현재까지 입항한 선박 가운데 가장 큰 선박은 어느 배일까? 부산에 입항한 최대 선박은 2004년 11월 20일 입항한 8,500TEU 급 컨테이너선 'CSCL Asia'호이다.

이 선박은 길이 334미터, 폭 42.8미터로 전 세계에서 운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 중 최대급으로 2004년 7월 우리나라 삼성조선소에서 건조했다.

통상 우리가 가장 큰 선박이라고 생각하는 항공모함 중 최대인 미국 해군 '헨리 트루먼'호는 길이 332.9미터인데, 'CSCL Asia'호는 그보다 1.1미터가 더 긴 점을 생각하며 이 배가 얼마나 큰 선박인지 알 수 있다.

이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 8,500TEU는 20피트(약 6미터)길이 컨테이너 8,500개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컨테이너를 일렬로 세워놓을 경우 8,500개 x 6미터 = 51km미터에 달해 부산에서 마산까지 거리를 넘는 길이가 된다.

이와 같은 선박이 부산항에 한번 입항할 경우, 입항료, 도선료 및 예선사용료 등과 화물 적양하 수입 등 직접 경비와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합하면 부산항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수억원에 달하고 이는 웬만한 중견기업 직원 한 달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선박이 해당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 역할은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화물선 '베르게 스탈'과 최대 컨테이너선 'CSCL Asia'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였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해양조선강국의 자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출처 : 재미있는 배이야기(부산지방해양수산청)]